

국내 만니톨 수요 감소

대부분 의약용으로 사용 ... 식품용 확대 시급

국내 Mannitol의 수요가 소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, 무설탕껌이나 무설탕캔디 등 식품용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와는 달리 대부분 의약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만니톨의 93년 국내수요는 367톤으로 이는 92년 371톤에 비해 1%, 91년 437톤에 비해 16% 감소한 양이다. 이처럼 국내수요가 감소하는 것은 최근 국내 의약산업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. 만니톨은 90% 이상 의약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, 주로 타블렛, 캡슐, 산제, 현탁액 등에 약품감미제로 쓰이며, 특히 중외제약이 혈압강화 주사제로 연 6톤, 보령제약이 겔포스 첨가물로 연 85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 그리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sliding부품의 가공, 실험용 시약으로도 소량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국내만니톨수입현황(1993) (단위: M/T, 1000달러, %)				
구 분	수 량	금 액	점유율	
E U	197	646	53.5	
브 라 질	121	377	32.9	
중 국	35	105	3	
미 국	10	75	3	
일 본	5	45	1.4	
벨 기 에	0.1	1	-	
스 위 스	0.1	1	-	
A U S	0.05	1	-	

주) 점유율은 수량 대비

국내 만니톨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, Roquette이 연 170톤으로 국내시장의 46%, Getec이 120톤으로 33%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

92년도 104톤으로 국내수요의 28%를 점유했던 오스트레일리아산은 ICI 현지 공장이 생산을 중단하면서 국내 수입량이 거의 없으며, 중국산은 93년 35톤 수입되었으며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한편, 93년도 외국메이커들의 국내 만니톨시장 점유율은 국제시장의 변동에 의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.

가격은 주사제로 많이 사용되는 Roquette제품이 가장 비싼 KG당 3500원~4000원, Getec이 3.2달러, 중국산이 3달러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.

국내 만니톨시장은 제약업계의 경기둔화로 수요 증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, 식품용으로 사용이 가능해질 경우 큰폭으로 수요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.

<화학저널 1994/4/11>